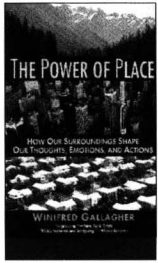


## 공간에 점령당하지 않는 힘



원제 The Power of Place:  
How our surroundings shape our thoughts, emotions, and actions  
저자 Winifred Gallagher

나는 겨울이 싫다. 겨울이라는 계절에 진저리가 쳐진다. 다른 특별한 이유에서라기보다 추운 것에 진저리가 쳐지기 때문이다. 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겨울을 없애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면서 늘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사람들의 생활이,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궁금했다. 늘 추운 곳이 고향인 사람의 마음, 그런 것이 궁금했다. 인터넷 서핑을 하는 나의 손과 눈을 멈추게 한 것은 이 책의 시작이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의 변화가 지금 내가 있는 곳과는 아주 다른, 알래스카 북쪽 지역 원주민들의 삶에서 이 책은 시작됐다.

*The Power of Place*는 '住'에 대한 나의 관심을 원하는 듯하다. '住' '공간' '환경'은 기본적으로서 기본 이상 나아가기 힘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새삼 인식해야 하는 의식주 삼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부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 말하자면 사람 밖의 공간 등속이 사람 안과 만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하는 것들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연적인 공간, 즉 자연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면서 주목한 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 이를테면 계절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흥미롭다. 쉽고 상세하고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환경은 자연의 공간인 산꼭대기에서 신의 공간인 성소, 인간의 공간인 자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구체적인 공간으로는 알래스카 북쪽 지역, 맨해튼의 지하철 등이 거론된다. 연구가들이 발견해 낸 흥미 있는 연구 결과들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이 글의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한다. 1부에서는 Outside In, 즉 밖이 안에 미치는 영향을, 2부에서는 Inside Out, 즉 안이 밖을 바라보는 반응을, 3부 Synchrony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통합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이사를 해야 했다. 며칠 전 계약금을 치렀다. 내가 몇 해를 살 공간으로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창 밖으로 아주 멀리지만 산이 보인다는 점 때문이었다. 물론 전기 콘센트의 위치마저도 옆집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무력한 아파트 건물이긴 하지만 말이다. 나는 작년에야 문득, 겨울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 냈다. 올 연말에는 실행해 보려 한다. 자신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공간에 점령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힘이다. **추천**

김이선 문학동네 편집부